

행복도시

Vol. 231호
6월

이웃



행복청 SNS
바로 가기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 도시개발의 세계적 본보기로 도약

❖ K-PM(종합사업관리) 몽골·이집트 등 해외 벤치마킹 잇달아...

❖ 행복청 출범 20년, 다양한 국책사업 조율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로 진두지휘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이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개청 이래 거대 국책사업을 흔들림 없이 진두지휘해 왔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행복도시 건설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정과제 역시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사업비 24.8조 원, 대상부지 면적 73km²에 달하는 거대 국책사업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올 수 있었던 데에는 행복청만의 차별화된 무기인 '종합사업관리(PM, Program Management)' 체계의 공이 컸습니다. 행복청은 수많은 공공과 민간 주체가 장기간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간 간섭이나 예산 중복 투입 같은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선도적으로 종합사업관리(PM) 체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종합사업관리(PM)는 단일 사업 중심의 건설사업관리(CM)를 넘어, 여러 사업을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는 상위 개념의 시스템입니다.

행복청은 표준 데이터 구조를 정립하고 '3단계 공정관리 체계'를 구축해 사업 간 간섭과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왔습니다. 나아가 2022년부터는 개발계획상 실제 개발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공공과 민간 실적을 모두 포괄하는 산정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른 올해 5월 말 기준 행복도시 종합공정률은 61.1%(총 개발면적 54.3km² 중 33.2km² 완료)로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현안 조율로 공기 단축 및 예산 절감 성과

행복도시는 착공 5년 반 만에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마무리하며 명실상부한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행복청 차장이 주재하고 LH 등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는 '종합사업관리 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초기 청사 건립과 첫마을

(2-3생활권) 인프라 적기 공급, 5-1생활권 부지조성, 동세종 변전소 전력구 설치 일정·노선 검토, 북측 지역난방 열원공급 일정 조율 등 다수 사업주체가 얹힌 현안을 사전에 조율했습니다.

예산 절감 효과도 컸습니다. 그 예로 6-1생활권 북측열원 공급 시설 열수송관로 재시공 방지를 위한 노선 변경으로 약 54억 원, 6-2생활권 변전소 송전선로 지중화 공법 변경 검토를 통해 약 68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했습니다.

글로벌 표준 위한 'K-PM' 수출 및 MPAS 디지털 시스템 고도화

검증된 행복청의 종합사업관리(PM) 경험은 이제 국내외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우뚝 섰습니다. 행복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교두보로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를 비롯해 몽골·이집트·탄자니아 등과 도시건설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새만금 사업을 비롯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선진 노하우를 배워갔으며, 학술 분야에서도 메가프로젝트 학회 등에 참가해 그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왔습니다.

디지털에 기반한 '행복도시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 역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의 관리모델 확산에 기여하기도 한 MPAS는 현재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고도화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플랫폼(V-World)과 연계해 준공 이력과 핵심 건설 현황을 지도 기반으로 조회할 수 있어 스마트 건설관리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행복청은 20년간 축적된 사업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행복도시를 가장 안전하고 품격 높은 명품 도시로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상징구역과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국민자문단, 경주에서 국가상징구역 조성 아이디어 모았다

- ✔ 국민자문단 ‘모두랑’ 제2차 공간기행 실시… 경주 역사문화 자산 현장답사
- ✔ 역사성과 상징성, 전통의 현대적 구현 방안 등 상징구역 조성방향 논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5월 29일(금) 국민자문단 ‘모두랑’과 함께 국가상징구역의 상징성을 찾기 위해 ‘천년수도 경주’에서 제2차 공간기행을 실시했습니다.

국민자문단 공간기행은 총 5회에 걸쳐 추진중이며 지난 4월 세종·대전 방문에 이어 이번 경주는 두 번째 일정입니다. 이번 공간기행에는 국민자문단 15명과 행복청 관계자 등이 함께 했으며, 참석자들은 경주의 대표 역사공간을 차례로 방문하며 국가 상징성, 정체성, 전통의 현대적 표현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전에는 동부사적지대와 고촌마을을 방문해 인위적인 시설 배치 대신 곡선형 보행 동선, 역사문화자원과 자연이 조화되는 공원 조성방식을 확인하였으며, 오후에는 경주엑스포대공원을 방문하여 경주 APEC기념관, 미디어아트 등 콘텐츠 구성, 경주타워 및 공원 내 편의시설 위치 등을 살펴봄에 국가상징구역 내 시민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답사를 마친 자문단은 곧바로 이어진 현장토론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경주가 대한민국의 역사적 도시로 확립 되기까지 천년의 세월이 걸렸듯이 국가상징구역 역시 시간을 두고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였으며, “미디어아트 등 현대적인 문화 콘텐츠를 풍성하게 채워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자연과의 조화, 곡선형 보행 구조 등을 살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라는 등 다양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행복청은 이번 경주 공간기행 결과를 토대로 분임별 보고서를 정리하고, 공간기행 및 국민자문단이 제안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말에 국민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몽골 정부 행복도시 방문, 신도시 개발 협력 박차

☑ 몽골 수도 과밀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및 위성도시 개발에 행복도시 모델 주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월 11일(목) 몽골 도시 개발건설주택부 국장 일행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몽골은 수도 울란바타르의 인구 집중 및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신행정수도인 '하르허롬(Kharkhorum)'과 수도권 위성도시인 '훈누(Hunnu)' 개발을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몽골 내에서 한국의 도시 인프라와 주거 단지 조성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행복도시의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몽골 측의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양국의 도시개발 협력은 몽골 고위급 인사들의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바트바야르 문후 '훈누' 개발행정청장 방문에 이어, 8월에는 후렐바타르 남다바 대통령실 수석보좌관과 할타르 루브산 '하르허롬' 시장 등 고위급 대표단이 행복청을 찾은 바 있습니다.

이번 방문단은 그간의 고위급 교류의 연장선상에서 실제 현장 설계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엔지니어 등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행복도시 홍보관에서 도시개발 과정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몽골 관계자는 “우수한 행복도시 건설 노하우를 직접 벤치마킹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몽골의 신도시 개발사업에 협력과 교류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몽골 정부와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쌓은 신뢰가 우리 기업들이 몽골 신도시 개발 시장에 진출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 이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강주엽

지난해 12월 22일,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 공모 당선작 ‘모두가 만드는 미래’가 공개됐습니다. 행복도시 중심부에 여의도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210만㎡ 규모로 조성되는 이 국가상징구역은 앞으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공간입니다. 공모작 발표는 오랜 시간 세종 시민들의 마음 한편에 머물던 “행정수도가 정말 되는 건가”라는 물음에 국가가 처음으로 가시적인 답을 내놓은 순간이었습니다. 기대와 의문 사이에 머물던 행정수도 완성의 꿈이 비로소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땅 위의 뚜렷한 윤곽’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곽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본격적인 설계 착수를 앞두고 있고, 국회세종의사당 역시 5월 마스터플랜을 확정 짓고 올 하반기에는 건축설계 공모에 돌입합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부지면적 총 25만㎡ 규모에 집무실과 관저, 위기관리센터, 참모진 업무시설 및 국민소통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국회세종의사당의 경우 약 63만㎡의 부지에 11개 상임위 및 국회도서관 분관,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처 일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더 이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정운영과 입법 기능이 마침내 실제 공간 안에서 구현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결정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우회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세종은, ‘실질적 행정수도’라는 징검다리를 건너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확고한 이정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이 역사적 전환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맞춰야 할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다. 바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대한민국과 행정수도를 위한 하드웨어라면, 행정수도 특별법은 그 하드웨어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입니다. 행정수도의 물리적 실체가 속도감 있게 모습을 갖추는 지금, 그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행정수도 특별법 관련 5개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상정되었고, 지난 5월에는 공청회도 마쳤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논의도 한층 더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착공 20년이 지난 지금, 세종은 여러 기관이 인정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의 가능성을 당당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과밀화라는 구조적 무게에 짓눌려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내 집 마련, 가장 낮은 출산율, 가장 긴 출퇴근 시간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미래 수백 년 동안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 키워내는 일. 그것이야말로 서울의 과도한 집중을 덜고, 국토 전체가 고르게 숨 쉬며 성장하는 균형발전의 새 길을 여는 일입니다. 행정수도는 이제 막연한 희망의 언어를 넘어, 현실의 시간 속으로 들어섰다. 앞으로도 이 흐름을 열심히 이어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얼굴이 될 행정수도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물길은 열고, 안전은 잠그고” 행복청 차장, 제2금강교 건설현장 안전점검

☑ 우기 대비 하천 유수 지장물 철거 및 근로자 폭염 대응체계 등 안전관리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우기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하여 최형욱 행복청 차장이 19일 제2금강교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우기 전 하천 내 시설물 조치 현황, 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 관리 상태, 교량 상부공 시공 안전관리,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제2금강교 건설공사는 총연장 820m, 왕복 2차로 규모로 사업비 382억원이 투입되며, 2023년 8월에 착수하여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는 교량 하부공정을 완료하고, 상부 슬래브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하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교 및 가도 철거를 병행하고 있으며, 슬래브, 배수시설, 방호벽 설치 등 하천 흐름과 무관한 상부 공정은 우기 중에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충분한 휴게시설과 냉방장비를 운영하고, 작업시간 탄력 조정, 온열질환 예방 등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이처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가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제2금강교가 개통되면, 도시 간 접근성이 개선되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광역생활권 형성을 통한 상생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금강교(등록문화재 제232호)는 보행전용교로 전환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최형욱 행복청 차장은 우기 전 교량 하부공 및 하천 유수 지장물 철거를 마친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홍수기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행복청, 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본격 착수

✓ 9일(화) 건축설계공모 공고... 6월 현장설명회 거쳐 8월말 최종 당선작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6월 9일(화) 건축 설계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그동안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했던 세종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도에 걸맞는 사법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2024년 10월「법원설치법」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행복청은 그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건축 기획 등 사전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왔으며 이번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4-1생활권) 부지에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만 6,805㎡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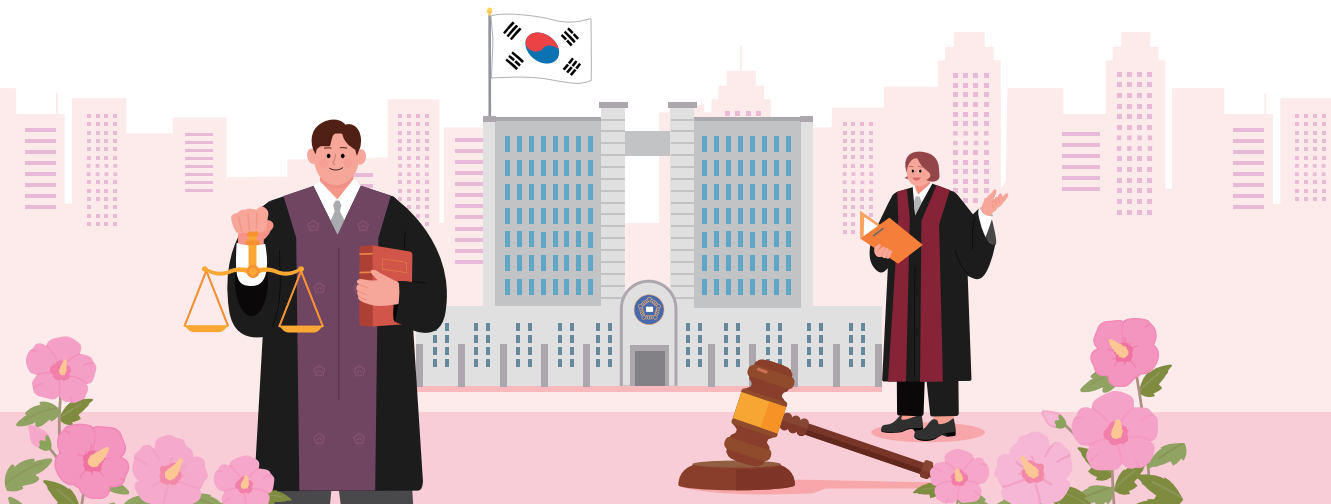
행복청은 6월 9일(화)부터 6월 15일(월)까지 참가신청을 접수하고, 8월 18일(화)까지 작품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종 당선자에게는 세종지방법원 기본 및 실시설계권(21억원)이 부여됩니다.

이번 설계 공모는 법원 시설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행복도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구현에 중점을 둡니다.

특히 법원 시설의 특성에 맞는 보안체계 구축, 민원인·재판 관계자·직원의 동선 분리 등 효율적인 공간계획과 향후 인접하여 조성될 세종지방법공소청과의 건물 배치와 연계성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설계 아이디어를 제안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지방법공소청은 「공소청법」 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공소청 조직 세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당국 및 수요기관(법무부)과 협의를 거쳐 건립을 추진합니다. 행복청은 먼저 착수되는 세종지방법원 개원 일정에 맞추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설계공모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http://www.naacc.go.kr>)을 비롯해 조달청 나라장터, 국토교통부 세움터와 한국부동산원 건축허브 등 주요 플랫폼에 일제히 게시될 예정입니다.





6교시

행복이와 한글교시



1 '소소리'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눈 따위가 가볍게 내리는 소리

높이 우뚝 솟은 모양 ☒

2 '띠앗'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형제나 자매 사이의 우애심 ☒

부모 자식 사이의 사랑

사자성어 배워가기

도 청 도 설

(道) (聽) (塗) (說)

길거리에 퍼져 돌아다니는
돈소문을 이르는 말

6교시 속담 퀴즈 맞추기

- 1 보리 안 패는 ○○없고 나락 안 패는 ○○없다
- 2 벼 줄 것은 없어도 ○○ 줄 것은 있다
- 3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다고 한다



5교시 속담 퀴즈 정답 ➔

1번 지네 2번 조약돌 3번 머리

행복청, 보도자료 빈칸 채우기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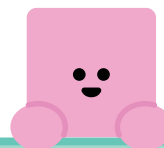
QUIZ

행복청은 수많은 공공과 민간 주체가 장기간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간 간섭이나 예산 중복 투입 같은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선도적으로

□□□□□□ 체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전 세계가 흥창을 주목합니다!

대회기간
2027. 8. 1. ~ 8. 12.

개최지
충청권 4개 시도 (대전·충남·충북·충청도)

참가인원
150여개국 15,000여명
(대전시 2,000명, 충청권 13,000명)

경기종목
16개 종목 240여 가지의 세부종목

경기장소
대전/충청권 4개 시도
대전: 대전충청체육센터, 대전충청학생체육관, 대전충청학생체육관, 대전충청학생체육관, 대전충청학생체육관
충남: 충주대, 충주대, 충주대, 충주대, 충주대
충북: 충주대, 충주대, 충주대, 충주대, 충주대
충청도: 충주대, 충주대, 충주대, 충주대, 충주대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통합돌봄으로

내 집에서 건강하게!

내 집에서 편안하게!
통합돌봄이 가능한 노후를
함께 만듭니다.



주요담당직

건강관리

주요담당직

일상생활

건강·신체

정신건강지원
 재활·건강관리 서비스

주요담당직 서비스

보건관리

보건진료 서비스 제공
 예방접종 서비스 제공
 재활지원 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건강관리

보건서비스 제공·관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노년층 욕구·건강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맞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지원

노년층 욕구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맞춤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

※ 위 서비스의 제공 대상은 서비스 대상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을 통해 결정됩니다.




[illegible]

중앙행정기관 대표번호는 110으로!

110을 대표번호로 사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늘어났습니다!

6개	21개	34개
2017년 1월	2017년 12월	2018년 1월



☑ 전화상담이나 다 관리해줍니다!

국민에게는 110만 가리지 않는
기관 전체에 대한 민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부터
행정안전부(경찰청)에 110을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
110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과학기술재단



국립과학기술재단

대한민국 최초로 있는 미래의 데이터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2026. 6. 1. ~ 7. 22




사람 데이터를 **AI**로
내 경쟁력을 **UP**합니다

조사대상 : 국내외에 산업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
조사방법 : 대면조사 또는 비대면조사
대상조사 : 대상자가 사생활을 망각한 조사
비대면조사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조사, 전화조사,
택배로 발송된 설문지 조사

경제총조사 홈페이지 : www.secretsus.go.kr
문의처 : 080-705-2025 (월~금 09:00 ~ 19:00) / (토요일) 09:00 ~ 17:00

한국과학기술재단



국립과학기술재단

[illegible]



먹을 수는 있지만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지진 발생 시 안전 행동 요령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을
회피하고 신속히 대피하기



지진 발생 시 안전 행동 요령

가시거리 0.5km 이내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을 회피하기



지진 발생 시 안전 행동 요령

지진 발생 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기



지진 발생 시 안전 행동 요령

지진 발생 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기



지진 발생 시 안전 행동 요령

지진 발생 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기



지진 발생 시 안전 행동 요령

지진 발생 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기



지진 발생 시 안전 행동 요령

지진 발생 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기



지진 발생 시 안전 행동 요령

지진 발생 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기



산사태 국민행동요령과 대피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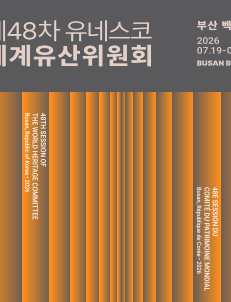
지진 발생 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기



지진 발생 시 안전 행동 요령

지진 발생 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하기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벡스코
2026
07.19 ~ 07.29
BUSAN BEXCO

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BEXCO, BUSAN, KOREA
19 JULY - 29 JULY 2026

48TH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BEXCO, BUSAN, KOREA
19 JULY - 29 JULY 2026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보도자료 빈칸 채우기 퀴즈 정답
종합사업관리

 페이스북 facebook.com/happycitysejong
 유튜브 youtube.com/user/happysejong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appycitysejong_official

 블로그 blog.naver.com/macc2030
 트위터 twitter.com/HappycitySejong